

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화학/정유]

금주 역내 TDI 스프레드, 전주 대비 22.2% 상승

유럽 생산차질로 인한 역내 TDI 업체들의 판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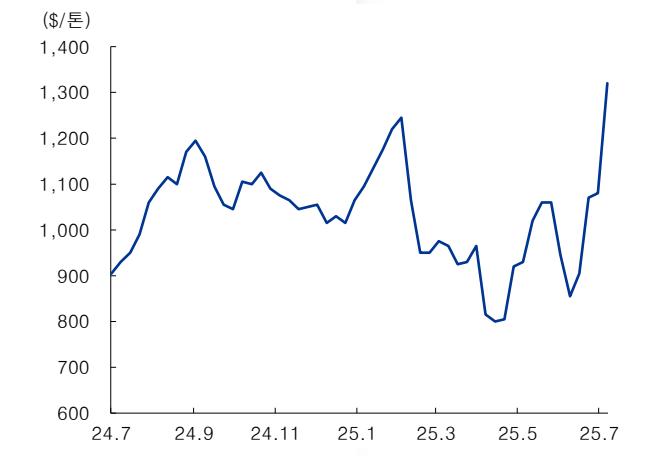
금주 역내 TDI 스프레드(톨루엔 기준)는 톤당 1,320달러로, 전주 대비 22.2% 상승했다. 미국 관세와 인도 몬순 우기로 인해 톨루엔 수요가 둔화되며 원재료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었으나, 제품 가격 반등으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역내 주요 제조사인 Wanhua Chemical, Covestro(Shanghai), Cangzhou Dahua 등은 7월 중순 이후 TDI 가격을 인상했다. 이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추진으로 수요가 소폭 회복된 데다, 유럽 내 TDI 업체들이 정기 보수와 화재 사고로 플랜트 가동 중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형가리 BorsodChem(Wanhua Chemical 자회사)은 7월 19일부터 4주간 연산 25만 톤 규모의 TDI 플랜트를 정기 보수할 예정이며, 라인강 수위 저하 속에서 독일 Covestro의 연산 30만 톤 TDI 플랜트는 7월 16일 화재 사고로 불가항력 선언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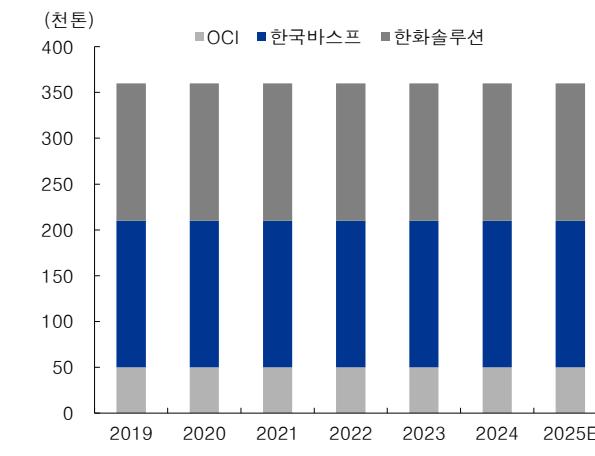
참고로, 국내 TDI 총 생산능력은 36만 톤으로, 업체별로는 한국바스프(16만 톤), 한화솔루션(15만 톤), OCI(5만 톤)가 있다. 또한, TKG휴켐스는 한화솔루션과 OCI에 DNT를, 한국바스프에 질산을 장기 공급하고 있다. 역외 업체들의 생산차질로 올해 3분기에 국내 폴리우레탄 원재료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역내 TDI 스프레드 추이



자료: 씨스켐, IBK투자증권

그림 2. 국내 TDI 업체별 생산능력 추이/전망



자료: 각사,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